

# 소비자들 휴대폰·교복 가격 가장 못 믿어

## 한국소비자원 35개 품목 2014년 평가지표 발표

### 높은 가격 불구 문제점·불만 많아 만족도 최하

소비자들은 휴대폰단말기 가격과 중, 고등학교 교복 가격을 믿지 못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연구 결과를 통해 휴대폰단말기의 소비자시장 성과지수가 가장 낮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개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수준이 높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총 35개 시장 중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가 69.4점으로 가장 낮았고, 중·고등교복 시장(69.5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국내 35개 시장의 소비자시장성과지수 평균인 72.4점에도 못미쳤다.

점수가 가장 높은 시장은 국산생수(75.3), 운동화(74.7), 미용실(74.4), 프랜차이즈 커피숍(74.3), 가정청소용품(74.1) 등의 순이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휴대폰단말기 시장은 소비자 문제 및 불만(93.5), 신뢰성(67.7), 가격(40.5)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소비자가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비율이 높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돼 가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소비자 지향적 시장으로의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고등교복 시장은 사업자 선택가능성 항목의 점수가 68.4로 가장 낮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장구조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총 35개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수준을 그룹화한 결과, 소비자 지향성이 매우 낮은 경고 시장은 18개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시장유형별로 보면 7개 상품시장과 11개 서비스 시장이 해당되며,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 지향적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 전체 가구 소비지출의 54.6%를 차지하는 16개 상품과 19개 서비스 등 35개 시장의 ▲비교용이성 ▲소비자문제 및 불만 ▲만족도 ▲신뢰성 ▲사업자 선택가능성 ▲가격 등의 6개 항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시민이 휴대전화 매장 앞을 지나며 핸드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산 어린이용 반지서 기준치 665배 납 검출

## 국가기술표준원 35개 제품 리콜명령 물총·장식식품 유해성분 함량 높아

중국산 어린이용 반지에서 소화기관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납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665배가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35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다. 리콜 대상은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장문 블라인드(4개), 온열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

개) 등이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건 대부분 중국·베트남 생산제품이다. 보라매완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장난감 물총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00배를 웃돌았다. 이 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생식기능과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장식용품도 유해성분 함량이 높았다. 중국산 자석 귀걸이는 납 성분이 최대 415배, 커플 반지는 최대 665배를 넘겼다. 이 두 제품은 카드뮴 허용치도 각각 30배를 초과했다. 납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모형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안정제 역할을 하고, 카드뮴은 색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납·카드뮴은 신장·간·위·장 등에 영향을 미치고 노출이 지속되면 중추신경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모형 자동차에도 유해성분 함량이 높았다. 아우디·BMW X5 등 고급 승용차를 본떠 만든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옷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랜드유패션사업부가 수입한 아동용 재킷은 카드뮴 성분이 허용치의 126배를 넘겼다.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온열시트 3개 제품은 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수입인증을 받을 때 기준을 맞췄다가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유해성분을 많이 쓴다"며 "장난감이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색상이 너무 화려하다면 유해성분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장에서 리콜 물품들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KT·두산·신세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공시의무를 위반한 KT·두산·신세계 3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5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식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 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 KT는 계열사 티오티엘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7개 계열사에서 8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두산은 4개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각각 있었다.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 내용 누락 2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 총 5억419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의 준법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제도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생활 밀착형 스미싱 문자 기승... 의심나면 바로 삭제해야

## 신년인사·선물·연말정산 등 가장

## 모바일 백신 이용·118 신고 등 당부

최근 생활 밀착형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나 '택배' 등을 가장한 생활 밀착형 스

미싱은 지난해 9월 16만7664건에서 10월 25만142건, 11월 33만5222건으로 매일 큰 폭으로 늘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적으로 설치돼 소액결제나 개인·금융정보를 몰래 빼내가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전체 스미싱 시도건수가 2분기 51만건을

점점으로 4분기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때 스미싱 방식이 생활 밀착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피해를 맞아 신년 인사나 선물, 연말정산, 대학 입학금 등을 약속한 스미싱 유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 신뢰할

수 없는 앱 내려받거나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 출처 불분명 문자·주소(URL) 클릭없이 삭제하기 ▲ 스미싱 차단앱 설치·실행 및 이통사를 통한 스팸차단 서비스 활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만약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됐을 경우, 모바일 백신을 이용해 삭제해야 하며 이런 조치가 어려우면 국번없이 118번으로 전화해 2차 피해예방 및 스미싱 차단앱·백신 프로그램 설치, 악성앱 제거 방법 등을 상담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무료배송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강황의 효능**

1. 치매예방
2. 당뇨 비만 등 성인병치료 예방
3. 관절염 치료 및 예방
4.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